

제23회 보건의 날 기념식

## “국민 삶의 질 향상 위한 보건복지정책 수행”

서상목 보건복지부장관, 기념사서 밝혀



제23회 보건의 날 기념식이 보건관련단체,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7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있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건협 경기지부 이순 사무국장의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 국내외 보건관련 인사 244명이 국가보건정책의 성실한 수행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사를 통해 서상목 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최근에는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주요 질병이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이의 해결을 위해 국가보건정책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탄생된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앞

으로 이 법을 근간으로 해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정책에 중점을 두는 한편, 적절한 보건복지시책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건협에서는 이순 국장 외에도 오제천 감사실장, 박광우 기획과장을 비롯한 각 시도지부 직원 11명이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으로 표창을 받았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 표창 : 이순(경기지부 사무국장)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오제천(본부 감사실장), 박광우(본부 기획과장), 김상환(서울지부 대리), 서강복(서울지부 대리), 이영하(대구지부 대리병리사)
- 인천광역시 표창 : 임옥숙(인천지부 사무과장)
- 충청북도지사 표창 : 김재권(충북지부 검사소장)
- 대전광역시 표창 : 육정일(대전·충남지부 대리병리사)
- 전라북도지사 표창 : 조세원(전북지부 주임)
- 광주광역시 표창 : 이건훈(광주·전남지부 병리사)
- 경상남도지사 표창 : 박옥자(경남지부 대리)
- 제주도지사 표창 : 정문휴(제주지부 병리사)

## 보건단체 합동 건강계몽 캠페인

지난 해 이어 서울역 광장에서 대대적으로 전개

4월 보건의 달을 맞이하여 보건복지부와 산하 보건단체가 합동으로 건강계몽 캠페인을 지난 4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가졌다.

지난 해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된 이 캠페인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가족계획협회,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등이 참가해 가두 무료 검사와 상담, 가족계획 상담, 결핵검진, 헌혈 계몽 등 국민들의 보건의식을 고취시키고 자발적 건강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건협은 이날 경기지부의 특수이동검진 차량, 서울지부검진차량 등을 동원해 서울 시민 250여명에 대한 혈액형, 당뇨병 등 무료검진을 실시했으며, 텔런트 조춘씨를 비롯한 직원들이 각종 건강관련자료를 시민들에게 배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임한중 건협회장, 성정웅 사무총장, 정건작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및 보건단체관련 인사들이 참석해 캠페인의 분위기를 한층 돋구어 주었다.

## 일본 야마구찌현 보건기술교류단, 경남지부 방문

일생을 통한 건강만들기사업 정보 교환

경상남도과 자매결연을 한 일본 야마구찌현의 보건기술교류단이 지난 3월 15일 건협 경남지부를 방문하고 협회 사업현황과 검사시설을 둘러봤다.

山口県 豊浦 환경연구소의 마스모토 미치코 보건증진과장을 단장으로 하여 총 4명으로 구성된 이 교류단은 경남이 추진하고 있는 “일생을 통한 건강만들기사업”의 추진 실태와 시설을 견학하고 상호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경남을 방문한 것이다.

도 보사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함안보건의료원, 건협 경남지부 등을 방문한 이들 교류단은 경남의 영양관계 조사 실시 상황, 감염병 및 각종질병 검사 체제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보건관련 현황을 둘러본 후 일본의 건강사업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기도 했다.